

키르기즈까지 뻗어가는 K-농업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키르기즈센터 개소식... 농산물 가공·가축개량 집중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7일 우리정부 신북방정책의 외교 대상국이자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키르기즈공화국(이하 키르기즈)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HA(코피아) :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출범을 공식화했다.

농진청은 이날 이원재 주키르기즈한국대사, 아스카르베크 자니베코프 키르기즈 농업수자원지역개발부 장관, 사지코프 카나 키르기즈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키르기즈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키르기즈국립대 테크노파크 공동시립회관에서 코피아 키르기즈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식은 2022년 한-키르기즈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열려 의미를 더했고, 양국 정부의 농업분야 협력을 통한 키르기즈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농진청은 키르기즈 농업수자원 지역개발부와 지난해 6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이 17일(한국시간) 키르기즈공화국에서 열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키르기즈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 해외농업개발 국제전문가인 이상덕 박사를 현지에 파견해 코피아 키르기즈센터 개소를 추진한 바 있다. 키르기즈 코피아센터는 가시적인 성과

과 도출과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우선 키르기즈 소농(小農)들의 관심사인 농산물 가공·가축 개량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

를 위해 코피아센터는 농식품 가공을 위한 한국산 소형장비를 도입하고 가공 기술을 지원해 키르기즈의 고품질 건조사과 제조 비율을 20~50%까지 확대하고 농가소득도 30%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가축개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가축 동결정액 및 인공수정 기술을 들여와 키르기즈의 가축 인공수정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우수 가축 생산을 통해 육류 및 우유 생산량을 20~30% 증가시킬 계획이다.

농진청은 ▲식량안보 ▲유기농업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생산단지) 개발 ▲디지털화 ▲신시장 개척 등 키르기즈 정부의 농업부문 6대 중점 추진과제와 코피아 협력과제를 연계해 키르기즈 농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두 나라가 동반성장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피아 키르기즈센터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키르기즈 정부와 농업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농수산 식품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 중기 지원 '맞손'

aT-중기중앙회,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농수산 식품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 ▲유통채널 활용을 통한 판로개척 ▲농수산 식품원자재 공급인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이 부족해진 농수산 식품원자재의 공급이 안정되고, 우리 중

소기업이 생산한 식품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춘진 aT 사장을 비롯해 김석원 이사장(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성락철 회장(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김치은 이사장(인천 김치절임류가공업협동조합, 정락현 이사장(한국축염공업협동조합) 등 농수산식품 관련 중소기업계도 함께 참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도 농업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식품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ESG경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쌀로 만든 요구르트 · 맥주를 아시나요?

농진청, '쌀의 날' 맞아 다채로운 가공제품 소개

밥 짓고 떡 만드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쌀이 과자, 요구르트, 맥주, 전분 등으로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8일 '쌀의 날'을 맞아 주로 밥과 떡으로만 즐겼던 쌀이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쌀의 무한변신'을 소개했다.

쌀요구르트는 우리 쌀에 전통 원장에서 분리한 토종 식물성 유산균(JSA22)을 접종해 만든 것으로, 100% 순 식물성 요구르트다. 총 아미노산 함량이 410.2mg/100g로 일반 유산균 발효물(268.0mg/100g)에 비해 1.5배 이상 많고, 아미노산 종류도 23종으로 일반 유산균 발효물(16종)보다 7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내 합성이 불가능해 반드시 식이로 보충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은 쌀요구르트에 22.0mg/100g이 들어있어 일반 유산균 발효물(1.8 mg/100g) 대비 12배나 함량이 높다.

영양 공급 및 장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 쌀요구르트는 직장인·수험생의 아침 대용식으로든 물론 우유 소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즐겨 찾고 있다. 쌀요구르트 1회분 만드는 데 약 20g의 쌀이 필요해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쌀 유산발효물 산화와 기술은 '2020 국가연구개발 100선'에 선정돼 사회까지 실현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전통 원장에서 분리한 토종 식물성 유산균(JSA22)을 접종해 만든 쌀과자(라이스칩)도 있다. 수입산 밀로 만드는 일반 과자와는 달리 기능성 유산발효물이 첨가되어 아이들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좋다. 특히 달지 않고 고소하며, 고온·고압으로 얇게 팥피를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특허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미들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코피아이스칩, 꼬까라이스칩)이 올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주관하는 '쌀가공품 품평회 TOP10'에 선정되었다.

쌀맥주는 맥주의 주원료인 외국산 맥아(보리) 대신 전분 대체제로 국산 품종 쌀을 30~40% 넣어 만든 것이다. 쌀맥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산 쌀 품종으로는 '도담쌀', '설강', '한가부', '흑진주' 등이 있다. '도담쌀' 30%를 넣어 만든 쌀맥주는 세계 3대 맥주대회로 꼽히는 '호주국제맥주대회'에서 2019년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설강'

40%를 넣어 만든 쌀맥주는 소비자들로부터 풍미가 좋고 부드러우며 단백하고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쌀점토는 건식 쌀가루와 식용색소, 천연첨가물 등 식재료만을 이용해 만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 점토다. 화학첨가물 등 유해물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가지고 놀 수 있어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구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손에 잘 묻지 않고 잘 늘어나며, 오랜 시간 보관해도 잘 굳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쌀점토에 사용된 쌀가루는 건식 쌀가루용 '신길' 품종으로, 끈적임이 적고 부드러워 점토로 활용하기에 좋다.

한편 2019년 기준 쌀 가공식품 소매시장 규모는 884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쌀 소비 촉진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즉석밥부터 과자·빵·면·맥주·막걸리·전분 등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더 많은 가공용도별 맞춤형 쌀 품종 및 가공제조 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읍 농어촌공, 윤준병 의원에 신규 사업지구 지정 건의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20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설명과 2022년 신규 사업지구 선정 지원에 대해 건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기수 지사장은 윤 의원의 질문에 추진 중인 지사 주요사업 및 농촌용수 확보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2022년 5개 사업 9개 지구 1,120억원에 대한 신규지정을 건의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수지 및 방조제의 물넘이·제방 등 보강을 통해 저수지 하류부 재해 피해를 방지하는 부진지구 치수능력증대사업 90억원, 고질적 가뭄지역인 소성면 애당리 및 고창군 성내면 일대 237ha 가뭄해소를 위한 애당지구 농촌용수체계개선사업 292억원 등에 대해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고생하는 공사 직원들에 감사의 표시로 영농편의를 증대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신규 지구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지사는 올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에 대해 572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6대 질병 중 고객이 원하는 보장 선택

내맘대로 NH 건강보험 출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17일 심장 암, 뇌, 간, 폐, 신장관련 질환 등 6대 주요 질병중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는 '내맘대로NH 건강보험'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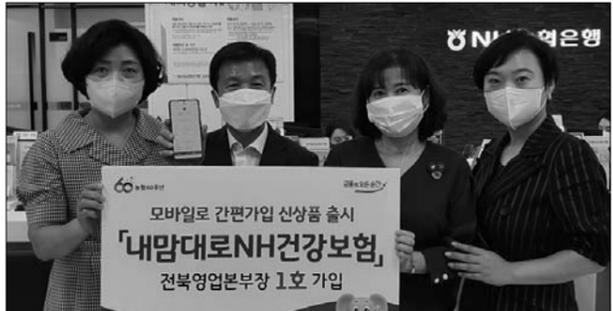
이날 NH농협은행 장기도 전북영업본부장이 NH농협은행 금암동지점에서 전북 1호로 가입했으며, NH농협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맘대로NH건강보험은 6대 주요 질병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하는 상품으로 고객별 니즈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농협 60주년 기념에 출시했다. 이 상품은 모바일 청약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으로 만

거시기장터 '제철제맛' 고구마편 조기 완판

전북도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이 함께 추진한 거시기장터 제철농산물 판촉 '제철제맛' 기획전이 4연속 조기 완판됐다.

'제철제맛' 기획전은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매일 한 품목씩 정해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내맘대로NH건강보험'이 출시됐다고 17일 밝혔다.

20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보험 만기 기간은 10년, 15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방법은 NH농협은행에서 모바일 청약을 진행하거나 NH농협은행 App 내 금융상품몰에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어 4연속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철제맛 기획전은 품목 특성상 계절과 관계없었지만, 고품질 상품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신 열렬한 소비자께 감사하다"며 "품목 선정과 기획전 운영에 힘써준 전북농협과 경제통상진흥원이 함께 만든 성과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 고객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소품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종자·육묘업 관련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교원·농생명 계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 확대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신 실습 기자재와 전문분야별 실습실 등 전문 교육시설을 갖추고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서봉원 교육센터장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목적으로 구축된 학사관리시스템은 이용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종자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교육과정은 교육센터 누리집(hrd.saed.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전화 ☎ 064-810-1500 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노란우산' 가입자수 150만명 넘었다

출범 첫해인 2007년 이후 꾸준히 성장세 이어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출범 14년만에 제적가입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2007년 4천 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10만 명, 2015년 50만 명, 2018년 100만 명, 2021년 7월말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회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자가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에게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월 2만원씩 1년간)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하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회가 지난 1990년부터 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2006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도입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었다. 초기 설립자금 부족으로 1PK 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비 45억 원을

지원받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예인 재능기부 형태로 공익광고를 시작했다. 출범 당시 공제대상자가 유일한 창구로 가입이 쪼렷할 줄지 않았으나, 시중은행 최초로 2011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가입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현재 15개 금융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030년 300만 명 가입을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 중심적인 제도운영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탁·적금형 신규상품 출시, 부금초과 신용대출 개시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영·심리상담 및 휴양시설 확대, 예식장, 소품물 건강검진, 문화예술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이 단기간 내 인척할 때까지 적극 지원해 주신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립종자원 학사관리시스템 누리집 운영

편리성 중점... 반응형 웹 방식으로 스마트 기기에 맞춰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는 17일부터 학사관리시스템 누리집(hrd.saed.gokr)을 운영한다.

교육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개칭이후 공문·팩스·전화 등으로 교육 신청을 접수해 사용자의 불편함과 학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용자의 교육 신청부터 담당자의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온라인 학사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개선된 교육센터 학사관리시스템은 이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용자의 교육 신청 또는 취소, 수강료 확인 등 사용자 중심의 메뉴와 교육 과정에 관한 세부정보 제공 등 관리자 메뉴로 운영된다. 또한 수료증 발급, 문자 카카오톡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반응형 웹 방식으로 PC, 태블릿, 휴대전화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맞춰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현된다.

한편 교육센터는 종자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차세대 인재 육성을 통

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종자·육묘업 관련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교원·농생명 계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 확대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신 실습 기자재와 전문분야별 실습실 등 전문 교육시설을 갖추고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서봉원 교육센터장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목적으로 구축된 학사관리시스템은 이용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종자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교육과정은 교육센터 누리집(hrd.saed.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전화 ☎ 064-810-1500 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